

古樂府 「烏夜啼」와 「烏棲曲」의 起源과 繼承 연구

- 六朝 시기 樂府詩를 中心으로*

徐榕浚**

目 录

1. 序論
2. 古辭 「烏夜啼」의 起源
3. 南朝 「烏夜啼」와 「烏棲曲」의 定立
4. 南朝 「烏夜啼」와 「烏棲曲」의 展開
 - 1) 「烏夜啼」의 沈滯
 - 2) 「烏棲曲」의 流行
5. 結論

1. 序論

唐의 저명한 詩人 李白은 唐代 樂府詩 復興의 주역이자 선도자이다. 三百餘首의 그의 악부시 가운데에서 그의 奇拔한 작품 「烏棲曲」은 이백 자신에게 “귀신을 울린다¹⁾”는 명성을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명성에 대해 歷代로 많은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5C-A00597)

** 가톨릭大學校 東아시아言語文化學部 時間講師

1) 범정전의 「당좌습유 한림학사 이공 신묘비서」에 “장안에 있을 때에, 하지장이 공을 쫓겨난 신선이라고 불렀고, 공의 「오서곡」을 읽고 ‘이 시는 귀신을 울릴 수 있겠다’고 하였다”고 나온다. (范傳正, 「唐左拾遺翰林學士李公新墓碑序」, “在長安時, 賀知章號公爲謫仙人, 吟公「烏棲曲」云, 此詩可以哭鬼神矣.”) 詹鍈,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96, 343쪽 재인용.

견해²⁾들이 있었는데, 그 평가들의 정당성을 차치하더라도 전체적으로 ‘樂府詩’ 「오서곡」의 정체성에 대해 문학연구자들도 익숙하지 않았다. 이백은 唐代에서는 최초의 「오서곡」 작자였다.

마찬가지로 唐代 최초의 악부시 「烏夜啼」 역시 이백이 지었다. 비교적 내용이 분명한 이백의 「烏夜啼」가 주는 슬픈 감동 때문에 어떤 평자는 이백의 「오야제」가 “귀신을 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³⁾ 그러나 이 역시 ‘樂府詩’ 「오야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악부시 「오야제」의 전통 안에서 보면 이백 작품의 시적인 표현방법이나 슬픔의 정서가 그 정도로 놀랍거나 대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악부시 「오야제」와 「오서곡」은 清商曲⁴⁾의 西曲歌⁵⁾에 속하는 新聲⁶⁾樂府이다. 서곡가는 梁과 陳의 왕족, 귀족, 문인들이 같은 시기, 또는 이전 시기의 지

2) 이에 대한 논문으로 서용준, 「이백 악부시 오서곡 연구-시의 화자를 중심으로」(『중국문학』 64집, 한국중국어문학회, 2010.)가 있다.

3) 唐, 孟棻, 『本事詩』, “이태백이 처음 촉으로부터 경사로 왔을 때 여관에서 지냈다. 하지장이 그의 명성을 듣고 처음으로 그를 방문하였다. 그의 모습을 기이하게 여긴 그는 다시 그가 쓴 글을 요청하였다. 「촉도난」을 꺼내어 보여주니 다 읽지도 못했는데 칭찬하며 탄식하는 것이 수 차례였고 하지장은 이백을 謫仙이라고 불렀다. 금거북이 장식을 풀어서 술과 바꾸고는 서로 따라주며 같이 취하여 여러 날을 보냈으니 이로써 그 명예가 빛을 발했다. 하지장은 또 그의 「오서곡」을 보고는 탄식하며 감상하고 고심하여 읊조리고는 이 시는 귀신을 울릴 수 있겠다고 말했다. … 어떤 사람은 그것은 「오야제」라고 하는데 누가 옳은지 모르겠다. (李太白初自蜀至京師, 舍於逆旅. 賀監知章聞其名, 首訪之. 既奇其姿, 復請所爲文. 出<蜀道難>以示之. 讀未竟, 稱歎者數四, 號爲謫仙, 解金龜換酒, 與傾盡醉, 期不間日, 由是稱譽光赫. 賀又見其<烏棲曲>, 歎賞苦吟曰, 此詩可以泣鬼神矣. … 或言是<烏夜啼>, 未知孰是.)”

4) 청상곡은 대체로 魏晉 이래로 중국 남방의 민요가 채집된 악부시를 가리킨다.

5) 청상곡은 吳聲歌와 西曲歌로 나뉘는데 시기적으로 오성가는 晉, 宋, 齊의 음악이고 서곡가는 梁, 陳의 음악이다. 지역적으로는 오성가가 建業(南京) 지방의 노래이고 서곡가가 장강 중류 및 한수 지역의 노래이다. 그런데 지역적인 구분은 남방이라는 공간의 공통점 때문에 시기적 구별만큼 의미가 있지는 않다.

6) 악부시의 역사에서 ‘새로운 소리’(新聲)라는 용어는 크게 2번 등장하는데, 漢 악부시에서 신성악부는 중국의 음악이 아닌 서역과 오랑캐의 노래를 받아들인 李延年的 「新聲二十八解」의 종류였다. 그 뒤 중국 문학의 중심이 남방으로 이동한 다음에 漢代의 민가와 달리 남방의 민가에 기반을 둔 악부시를 신성악부라 불렀다.

역 민가를 모방해 지은 악부시이다.⁷⁾ 「오야제」와 「오서곡」도 같은 경우이며 처음에 민간 가요에서 시작해 뒤에 왕족, 문인의 모방을 통해 문인계층의 악부시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오야제」의 경우, 郭茂倩은 『樂府詩集』에서 「오야제」의 최초 작품을 劉宋 때의 劉義慶이나 劉義康이 지은 것으로 해설하였다. 『악부시집』은 고대 악부시 연구에 있어서 가장 권위가 있는 총집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르기 까지도 「오야제」를 유의경의 작품으로 인정하고 그 가능성에 대해 탐구하는 작업이 「오야제」연구의 주된 흐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마치 『詩經』의 민간가요를 毛亨이나 朱熹가 왕족이나 귀족의 작품으로 단정하자 그 근거와 가능성 등에 해설하기 급급했던 고대의 학자들의 작업과 다를 바가 없다.

그나마 「오야제」는 西曲歌의 하나로 악부시사에 이름이 간혹 등장하지만 「오서곡」은 남조의 궁정에서 잠시 유행을 했을 뿐이다. 「오서곡」이 후대에 이름을 조금이라도 얻은 것은 이백의 시 때문이다. 그러나 「오야제」는 그 시대 남방 민가의 여성적이고 퇴영적인 경향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고, 「오서곡」은 南朝 궁체시가 악부민가로부터 여성적이고 퇴폐적이며 안일한 형태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아울러 「오야제」와 「오서곡」은 모두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 즐거움과 슬픔 등의 서정적 주제를 까마귀라는 객관적 매개물을 통해 표현했다. 악부시에는 「오야제」와 「오서곡」 외에도 까마귀가 중요한 소재로 등장하는 작품이 있다. 그러나 「오야제」와 「오서곡」은 서정적인 애정 이야기의 작품 중에서 ‘사랑과 이별’이라는 가장 전형적인 형태를 형성하였고, 이러한 시적인 구조는 그 시대 이전과 이후를 관통하였다. 그러므로 악부시 「오서곡」과 「오야제」의 기원과 그 계승 과정을 고찰하고 평가하는 것은 고대 악부시와 漢詩의 연구에서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7) 蕭滌非, 『漢魏六朝樂府文學史』, 臺北: 長安出版社, 1976, 183쪽.

2. 古辭「烏夜啼」의 起源

일반적으로 알려진 漢代의 악부시와 魏晉 이후의 南朝의 악부시는 그 내용과 형식에서 서로 다른 성격을 가졌다. 漢의 악부시는 漢의 樂府에서 수집한 민가와 그 민가의 모방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⁸⁾ 현재 전하는 악부시를 근거로 판단했을 때에, 漢의 악부시에서 문인이나 전문 악사의 창작 작품은 극소수이다. 대부분의 문인들은 다양한 원류에서 수집된 민가들을 모방하여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민간의 악부시를 흉내 내는 정도로 악부시를 지었다.

漢末, 또는 魏晉初에 古詩가 등장하면서 漢시의 영역에서 민가적 성격의 비개성적인 악부시를 극복한 개인적 서정시가 탄생하였다. 이에 따라 문인들의 문학적 역량은 개인적 서정을 구체적으로 표출하게 되었다. 晉을 거치면서 玄言詩와 山水詩가 등장하였고, 漢시의 개인적 서정은 철학적이거나 사회적인 개성초월의 단계를 경험하게 되었다.⁹⁾ 이러한 시들은 너무 초월적이었기 때문에 宮廷 文學 集團을 이루는 문인 귀족 사회 내부에서는 시 창작의 흥미와 서정적 감수성에 대한 부족감을 느꼈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 남방을 배경으로 하는 민간의 가요는 문인 귀족 계층에게 새로운 시 창작을 가능하게 하였다. 南朝의 新聲樂府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이다.¹⁰⁾ 이에 따라 남조의 漢詩, 즉 宮體詩는 사소하거나 艷麗한 내용에 치중하였다. 시인의 구체적이고 독특한 개성이 퇴화하는 부작용도 있었으나, 漢시의 영역에 다시 순수한 감수성과 서정적 개성을 회복시켰다.¹¹⁾ 宮體詩人

8) 漢 악부의 성격에 대한 정리는 『中國文學概論』(金學主, 新雅社, 서울, 1991)과 『漢魏六朝樂府文學史』(蕭滌非, 앞의 책)의 설명을 참고하였다.

9) 이러한 문학적 경향의 변화에 대해서는 沈元林, 「再評宮體詩」, 『天府新論』 2000년, 제3기, 四川省社會科學界聯合會, 2000, 82쪽을 참고.

10) 蕭滌非는 남조의 악부가 악부시 사상 가장 낭만적이면서도 가장 공허했다고 하였다. 蕭滌非, 앞의 책, 223쪽.

11) 强中華, 「蕭梁帝王詩歌題材瑣屑的多重原因」, 『北方論叢』 2010년, 제6기, 哈爾濱師範大學, 2010, 16-20쪽.

들은 악부시와 그 이야기에 대한 모사를 통해 舊體古詩를 해체하고 새로운 시의 영역-近體詩-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¹²⁾

이렇게 확보한 문학적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남조의 개별적인 시인은 충분히 개성적이고 구체적인 시가의 창작이 가능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왕족, 귀족, 문인의 무리를 만들어 남조 민가의 성격¹³⁾을 가진 모방된 악부시를 만들었다. 그 결과 민가의 단체적인 서정과 감수성을, 주로 왕족과 귀족의 것으로 생각되는 남조 문인의 개인적인 서정과 감수성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다.¹⁴⁾ 결국 과연 현재 전하는 남조의 악부시나 궁체시가 민가의 傳來作인지, 민가의 성격을 가진 시인의 창작물인지, 그래서 그 속에 담긴 시인의 정서가 시인 개인의 고유한 것인지, 민가적 성격의 공통된 정서인지 불분명하게 되었다.

『악부시집』이 「오야제」의 本事를 밝히면서 唐代의 자료를 검토했음에도 특정 인물의 이야기와 작품으로 판단했던 까닭이나, 최근의 악부시 관련 연구자들이 『악부시집』의 견해를 받아들여 「오야제」의 본사를 판단하는 까닭 역시 이러한 악부시 연구의 까다로움과 관련이 있다.¹⁵⁾ 광무천은 『악부시집』의 「오야제」 항목에서 杜佑의 『通典』과 崔令欽의 『教坊記』의 기록을 인용하여 「오야제」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였다.

12) 陳恩維, 「論模擬與南朝宮體詩人的新變策略」, 『學術探索』 2009년 5기, 雲南省社會科學界聯合會, 2009, 138-144쪽.

13) 蕭滌非는 남조 민가의 성격을 3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 대개 五言四句의 小詩로 체제가 간단하고, 둘째, 풍격이 巧妙하며 艷麗하고, 셋째, 내용이 單調로와서 千篇一律적으로 여성위주의 艷情歌謠라고 하였다. 蕭滌非, 앞의 책, 183쪽.

14) 개인적 서정과 단체적 서정의 구별 문제는 『詩經』의 시를 해석하는 문제부터 시작되는 중국 고전시 연구의 가장 오래된 문제의 하나이다.

15) 그리고 더 나아가가서 전체적인 악부시의 연구에서 시의 본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국 연구자의 연구 경향 또한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매우 광범위한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吳相洲, 「關於建構樂府學的思考」,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제43권제3기, 北京大學, 2006, 참조.

『당서·악지』¹⁶⁾에서 말하길 오야제란 송 임천왕 의경¹⁷⁾이 지은 것이다. 원가 17년(440)에 팽성왕 의강¹⁸⁾을 (강주자사로) 예장으로 보냈다. 의경은 당시에 강주자사였는데 의강이 진에 도착하자 서로 만나서 울었다. 문제¹⁹⁾가 듣고는 괴이하게 여겨서, 의경을 불러 돌아오게 하니 의경이 매우 두려워했다. 시첩이 한밤중에 까마귀가 우는 소리를 듣고는 서제의 문을 두드리고 말하길, “내일 분명히 사면이 있을 겁니다.”라 하였다. 그해에 남연주자사가 바뀌어 임명되니 이 때문에 노래를 지었다. 그래서 그 노래에 “밤마다 낭군께서 오시길 바라오니 창을 밀어도 창이 열리지 않는구나.”라 하였다. 지금 전하는 가사는 아마도 의경의 본 뜻이 아닌 것 같다.

『교방기』에서 말하길 오야제란 원가 28년(451, 의강사망년)에 팽성왕 의강이 죄를 지어 추방되니 행렬이 심양에 이르렀다. 강주자사 형양왕 의계²⁰⁾가 머물도록 만류하여 연회를 하며 술을 마시 열흘이 지나도 떠나지 않았다. 문제가 듣고는 화를 내어 모두 가두었다. 회계공주²¹⁾가 누나였으니 일찍이 문제와 연회를 즐기며 자리에 있다가 일어나 절을 하였다. 문제가 그 뜻을 알지 못하여서 몹소 그녀를 말렸다. 공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길, “차자는 늙어서까지도 폐하게 용서받지 못하겠지요.” 차자는 의강의 소자이다. 문제는 장산을 가리키며 말하길 “결코 그렇지 않을 것

- 16) 『당서·악지』의 내용은 두우의 『통전』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마지막 부분의 “의경의 본 뜻이 아닌 것 같다” 역시 두우의 생각이다.
- 17) 劉義慶은 武帝의 조카로 少帝보다도 형뻘이다. 어려서부터 능력을 인정받아 중앙의 벼슬과 荊州刺史(원가 10년), 江州刺史(원가 17년), 南兗州刺史(원가 18년) 역임하다가 원가 21년 병사하였다. 그는 문제의 형제들과 달리 안정된 삶을 살았다. 남연주자사가 된 다음 유명한 知人小說인 『世說新語』를 만들었다.
- 18) 劉義康은 武帝의 다섯째 아들로 文帝의 동생이다. 文帝에 반대하는 신하들에 의해 황제 감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원가 17년에 유배되고 원가 22년에 庶人으로 강등당한 다음 원가 28년에 사약을 받았다.
- 19) 文帝는 劉義隆이다. 武帝의 셋째 아들로 태자였던 少帝가 황제가 된 다음 신하들에 의해 쫓겨난 뒤 황제로 모셔졌다. 그는 다른 형제들을 정적으로 의식했고 신하들의 반란을 경계하였다.
- 20) 劉義季는 武帝의 일곱째 아들로 文帝의 동생이다. 원가 16년 劉義慶의 뒤를 이어 荊州刺史가 되었고 원가 21년 유의경이 병사하자 남연주자사가 되었다가 원가 24년에 사망하였다. 유의강의 몰락을 경계 삼아 평생을 술로 보냈다고 한다.
- 21) 회계공주는 劉興弟로 武帝의 큰 딸이며 문제와 유의강의 누나다. 강주로 쫓겨난 유의강과 문제를 화해시킨 일은 원가 17년 무렵의 일이며, 그녀는 원가 22년에 사망하였다.

입니다. 아니라면 초영릉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무제가 장산에 묻혔기에 선제의 능을 가리켜 맹세한 것이다. 그리고 남은 술을 봉해서 의강에게 보내며 또한 말하길 “어제 회계의 누나와 술을 마시다가 즐거움에 동생이 생각나서 마시던 술을 보낸다.”라 하여 마침내 그를 용서하였다. 사자가 심양에 도착하기 전에 형양왕부의 하인이 두 왕이 갇힌 궁실을 두드리며 말하길 “어제 밤에 까마귀가 밤에 울었으니 관청에서 분명히 사면이 있을 것입니다.”라 하였다. 잠시 후에 사자가 와서 두 왕이 석방이 되니 이 노래가 있게 되었다.

내²²⁾ 생각에 사서에서 임천왕 의강이 강주자사가 되었다고 하였는데 형양왕 의계가 강주자사였다고 말한 것은 잘못 전해진 것이다. 『고금악록』에서 “「오야제」는 옛날 춤으로 열여섯 사람이었다.”고 하였다. 『악부해제』는 “또한 「오서곡」이라고 있는데 이와 같은지 모르겠다.”고 하였다.²³⁾

『통전』은 「오야제」를 劉義慶이 지었다는 하였고, 『교방기』는 劉義康이 지었다고 하였는데 마지막에 曷武천은 『교방기』가 조금 틀렸다고 말하였다. 사실 『교방기』의 내용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 劉義季와 회계공주는 원가 28년 이전에 이미 죽었고, 유의계는 강주자사가 된 적도 없다. 원가 28년에 유의강은 용서를 받은 적이 없다. 사서에 나오는 회계공주의 이야기는 원가 17년의 일로 추정된다.

『통전』에서 유의강이 원가 17년에 좌천되어 강주자사가 되었고 그 전에 유

22) 曷武천을 가리킨다.

23) 『唐書·樂志』曰, “「烏夜啼」者, 宋臨川王義慶所作也. 元嘉十七年, 徙彭城王義康於豫章. 義慶時爲江州, 至鎮, 相見而哭. 文帝聞而怪之, 徵還慶大懼, 伎妾夜聞烏夜啼聲, 扣齋閤云, ‘明日應有赦.’ 其年更爲南兗州刺史, 因此作歌. 故其和云, ‘夜夜望郎來, 籠窗窗不開.’ 今所傳歌詞, 似非義慶本旨.” 『教坊記』曰, “「烏夜啼」者, 元嘉二十八年, 彭城王義康有罪放逐, 行次潯陽. 江州刺史衡陽王義季, 留連飲宴, 歷旬不去. 帝聞而怒, 皆囚之. 會稽公主, 姊也, 嘗與帝宴浴, 中席起拜. 帝未達其旨, 躬止之. 主流涕曰, ‘車子歲暮, 恐不爲階下所容!’ 車子, 義康小字也. 帝指蔣山曰, ‘必無此, 不爾, 便負初寧陵.’ 武帝葬於蔣山, 故指先帝陵爲誓. 因封餘酒寄義康, 且曰, ‘昨與會稽姊飲, 樂, 憶弟, 故府所飲酒往, 遂宥之.’ 使未達潯陽, 衡陽家人扣二王所囚院曰, ‘昨夜烏夜啼, 官當有赦.’ 少頃使至, 二王得釋, 故有此曲.” 按史書稱臨川王義康爲江州, 而云衡陽王義季, 傳之誤也. 『古今樂錄』曰, “「烏夜啼」, 舊舞十六人.” 『樂府解題』曰, “亦有「烏棲曲」, 不知與此同否.” 郭茂倩, 『樂府詩集』, 北京: 中華書局, 1979, 690쪽.

의경이 강주자사였다고 한 것에는 오류가 없다. 최영흡은 763년 무렵에 『교방기』를 썼고 두우는 801년 무렵 『통전』을 쓰면서 750년 이전에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吳兢의 『樂府古題要解』의 해설을 채택했다.²⁴⁾ 『악부고제요해』의 내용은 『통전』의 내용과 거의 같다. 광무천이 위에서 인용한 『악부해제』가 바로 『악부고제요해』로, 오궁은 「오야제」와 「오서곡」이 서로 비슷하다고 여겼다.

역사학자였던 두우는 오궁의 기록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첨가했는데, 까마귀가(赦免의) ‘기쁜 소식을 알려줬다’²⁵⁾는 이야기와 전해지는 「오서곡」의 가사²⁶⁾가 서로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우가 의심한 제1수는 『玉臺新詠』²⁷⁾에도 실렸다. 그러나 현재 전하는 최초의 또는 가장 오래된 이 「오서곡」²⁸⁾의 가사는 그런 내용²⁹⁾이 아니다. 광무천이 말한 ‘밤마다 낭군께서 오시기를 바라오니…’의 노래³⁰⁾도 까마귀의 報喜나 赦免의 내용은 아니다. 두우 역시 『옥대신영』의 古辭 「오야제」가 가장 초기의 작품으로 본 것 같다. 古

24) 가와이 고조, 심경호 역, 《중국 고전시, 계보의 시학》, 서울 : 이회, 2005년, 79쪽.

25) 중국인들은 漢字語로 ‘報喜’라고 부른다. 본 논문도 채택하였다.

26) 『악부시집』은 『당서·악지』를 임의로 拔萃를 해서, 마치 ‘지금 전하는 가사’가 ‘夜夜望郎來, 籠窗窗不開’로 읽혀진다. 그러나 杜佑의 『통전』이 가리킨 ‘지금 전하는 가사’는 악부시8수 가운데 제1수이다. 『당서·악지』에서도 제1수를 뒤에 인용하였고, 『文獻通考』 등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7) 『옥대신영』은 梁의 簡文帝(503-551)가 태자 때 명을 해서 532년에서 535년 사이에 徐陵이 편찬한 일종의 애정시 모음집이다. 『옥대신영』은 漢에서 梁까지의 작품을 수집하였다. 원가 17년과는 90년 정도 나중이다. 『옥대신영』에 실린 古辭 「烏夜啼」의 제1수가 현재 전하는 가장 오래된 가사이다.

28) 본 논문에서는 제1수를 포함한 최초의 「오야제」 8수를 古辭 「오야제」, 또는 古辭로 부르도록 하겠다. 초기작이며 시초라는 의미이다.

29) 사실 제1수는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 『玉臺新詠考異』는 제1수에 대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악부에는 잡스럽고 통하지 않는 것이 많아 뒷사람이 보면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다.”고 하였다.

30) 『악부시집』에는 “夜夜望郎來, 籠窗窗不開.”로 되어 있으나 『당서·악지』에는 “籠窗窗不開, 烏夜啼, 夜夜望郎來.”로 되어 있다. 『통전』에는 “籠窗窗不開, 烏夜啼, 夜夜望郎來.”로 되어 있다. 『악부고제요해』에는 “籠窗窗不開, 夜夜望郎來.”라 되어 있다. 중간의 ‘烏夜啼’는 和音이나 衍文으로 보이는데, 광무천은 連文으로 보았다.

辭의 초기 민가적 성격이나 『옥대신영』에 실렸다는 사실³¹⁾로 보았을 때에, 이전에 다른 「오야제」가 존재했을 가능성은 적다.

「오야제」의 기원에 대한 기록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初唐 때에 徐堅이 『初學記』에서 인용한 『琴歷』³²⁾의 서술이며, 약간 다른 내용이다.

송의 임천왕 유의경이 강주자사였는데, 문제에게 벌을 받게 되었다. 집안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는데, 그의 첩이 밤에 까마귀가 우는 것을 듣고, 근심과 그리움에 곡을 만들었다.³³⁾

『금력』에 따르면 「오야제」를 지은 사람은 유의경이 아니라 그의 첩이다. 그녀는 유의경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때 까마귀가 울었고 그것을 시로 쓴 것이 「오야제」였다. 까마귀가 報喜를 했다는 내용은 없다. 이러한 이야기는 古辭와도 부합한다. 그리고 비록 유의경이 특별한 정치적 사건 없이 순조롭게 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文帝에게 어떤 징계를 받았을 수 있다. 그러나 흥미로운 이야기가 되기에는 재미가 부족하다.

뒤에 나온 『악부고제요해』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더해졌다. 그 시대에 정치적 탄압으로 불행하게 사망을 한 대표적인 인물인 유의강을 포함시켰다. 더 비극적이고 더 구체적인 연루 사건이 완성되었다. 여기에 유의강에 대한 동정심을 유의경과 연계시켜서 까마귀의 報喜 이야기를 더한 것은 傳奇的이고 神話的인 소망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는 사실무근이지만 盛唐과 中唐의 시기 사이에 마치 설화처럼 유포되었다.³⁴⁾ 『세설신어』의 저자 유의경에게 어울리는 신기한 이야기지만 이야기의 핵심인물은 유의강이었다. 결국 『교방

31) 제1수는 『옥대신영』에 近代西曲歌의 묶음 아래에 들어있다. 여기서 ‘근대’란 梁을 기준으로 이르는 말이다. 본 논문 주석6번을 참조할 수 있다.

32) 『금력』은 인용된 문장으로만 전해지는 책이다. 남조부터 隋에 이르는 시기 사이에 지어졌을 것이다.

33) 宋臨川王義慶爲江州刺史，爲文帝所徵。家人大懼，其妾夜聞烏啼，憂思而成曲。王立增， 앞의 책, 65쪽에서 재인용.

34) 가와이 고조, 앞의 책, 79쪽.

기』의 이야기에서는 아예 유의경이 사라지고 갑자기 회계공주와 문제가 끼어들었다. 그러나 王立增의 주장³⁵⁾처럼 『통전』과 『교방기』의 기록은 모두 신뢰할 수 없다. 비록 「오야제」의 기원 이야기(本事)³⁶⁾는 훨씬 재미있고 劇的이고 刺戟的이 되었지만,³⁷⁾ 실제 악부시의 창작에서는 아무도 따라하지 않았다.³⁸⁾

곽무천은 『악부시집』에서 여러 시들의 해제를 쓰면서 기본적으로 기존의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렸다.³⁹⁾ 그러나

35) 王立增은 「烏夜啼本事考」에서 신뢰할 수 없는 사료로 인해 유의경이나 다른 인물 기원 설을 믿을 수 없다고 하였다. 대신에 그는 고대의 「烏鴉喜報」 풍속에서 「오야제」가 기원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부족한 결론이다. 王立增, 「烏夜啼本事考」, 『貴州文史叢刊』 2008년제1기, 貴州省文史研究館, 2008, 65-67쪽.

36) 曾曉峰과 彭韋鴻은 漢樂府의 口頭傳承의 특징 때문에 시문의 전파에는 本事가 중요하며 본사가 없는 악부시는 전파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통계에 따르면 『악부시집』에서 한대의 악부로 알려진 148수의 악부시 중에 본사가 있는 것이 65수로 점유율이 44퍼센트 이상이다. 그들은 班固가 『漢書』에서 설명한 악부시가 “슬픔과 즐거움으로부터 감흥을 일으켰고, 일을 따라서 발생하였다(感于哀樂, 緣事而發)”는 생성 원리에 근거하여, 악부시의 시문과 본사는 서로 의존할 뿐 아니라(文事相依), 심지어 본사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었다(文義事存)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참고할 가치가 있으나, 본사의 의미를 지나치게 과장했고, 「오야제」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曾曉峰, 彭韋鴻, 「試析漢樂府文事相依的傳播特點」, 『中南民族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제24권제2기, 國家民族事務委員會, 2004, 137-139쪽.

37) 向回는 「오야제」의 본사가 가진 강한 傳奇性이 악부시를 지을 때 본사를 직접 노래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서 본사가 신기하고 재미있으니까 악부시를 따라서 지었다는 의미이다. 向回 「本事對文人古題樂府創作的影響」, 吳相洲 編, 『樂府學第三輯』, 北京: 學苑出版社, 2008, 257쪽.

38) 傳奇의인 「오야제」 본사는 겨우 100년 이후의 남조의 악부시인 중 아무도 따라하지 않았고 그 뒤의 「오야제」의 창작 역사에서도 사용된 적이 없다. 단지 中唐 때 張籍이 「烏夜啼引」을 지을 때 썼고 그와 정치적 성향이 비슷했던 元稹이 「聽庾及之彈烏夜啼引」에서 인용했을 뿐이다. 「오야제」의 거문고곡이라는 뜻인 「烏夜啼引」은 오직 장적의 작품 1수만 있는 新樂府다. 악부시 「오야제」가 본래 거문고곡이었는데 장적은 다시 거문고곡 「오야제인」을 만든 것이다. 장적은 古樂府 「오야제」의 본사가 그 정치적인 교훈(불의한 징벌과 까마귀의 喜報)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교훈적인 이야기를 새롭게 만들려 하였지만 별 반향은 없었다. 남편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자 아내에게 까마귀가 사면을 알린다는 내용의 이 시는 원진의 시의 기본 배경이기도 하다.

39) 向回에 따르면 곽무천을 악부시들의 해제를 작성하면서, 첫째, 전인의 직접적 기록(즉

곽무천이 대부분 민가에서 유래한 악부시들을 왕족이나 귀족의 창작이거나 그들의 이야기에서 유래했다고 판단한 것이 곽무천만의 오류는 아니다. 本事는 악부시 창작과 전파 및 후세의 연구에서 중요한 요소 분야임에는 분명하지만 실제 악부시 작품에서는 서사의 이야기 구조와 시적 모티프의 일부 정도의 의미만을 가진다.⁴⁰⁾ 그런데 「오야제」의 경우에는 실제 작품과 부합하지는 않지만 참고할 가치는 있다. 다음은 『옥대신영』에도 전해지는 초기의 古辭 「烏夜啼」 8수이다.⁴¹⁾

1. 노래하고 춤추는 여러 젊은이들, 어여쁜 자태도 종적이 없어지리. 창포꽃이 불쌍하구나, 이름은 알려졌으나 알아보는 이가 없으니.
2. 긴 돛대 위의 쇠로 만든 도르래로, 마포 돛이 느릿느릿 펼쳐진다. 당신께 부탁하니 배 안에서 편안하게 계시길, 이제 떠나면 수천 리를 가실 테니.⁴²⁾
3. 집을 떠나서 멀리 가버리신 후에, 당신과 저만이 헤어져 사는군요. 오늘은 까마귀 우는 소리도 없는데, 비단을 찢어 돌아오시라는 편지⁴³⁾를 씁니다.

이전 악부관련서적의 기술)을 인용하거나, 둘째, 문인의 시가의 경우 그 서문, 주석, 정리자의 편찬 설명 등을 채용하거나 셋째, 사료를 직접 조사해서 스스로 해제를 작성했다고 한다. 向回, 「樂府詩集解題材料的類型分析」, 吳相洲 編, 『樂府學第六輯』, 北京: 學苑出版社, 2010, 11-27쪽.

- 40) 吳相洲는 악부시 연구의 중요 요소로 일본의 佐藤大志가 『六朝樂府文學史研究』에서 제시한 曲調, 歌辭, 題名으로는 부족하다 여기고 다시 曲名, 曲調, 本事, 體式, 風格의 5개 요소를 주장했다. 吳相洲, 앞의 논문, 69쪽. 그의 주장은 최근의 중국의 악부시 연구에서 두루 수용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5개요소의 주장은 비문학적인 중국적 형식주의 연구 태도의 산물이다.
- 41) 본 논문의 모든 악부시는 곽무천의 『악부시집』을 저본으로 삼았다.
- 42) 이 시는 『청상곡사·오성가』에 포함된 「懷儂歌」의 제8수와 동일하다. 「오농가」는 여인이 이별을 한스러워하는 내용이며 「오야제」와 비슷한 점이 있다. 비슷한 지역의 비슷한 내용의 노래였기 때문에 생긴 혼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혼동 역시 민가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 43) 還書는 사전적 의미로 ‘편지’, ‘답장’, ‘돌아오길 바라는 편지’로 이해가 가능하며, 이 시에서는 모두 해석이 가능하다. 제3수의 맥락과 다른 시들의 내용을 참고하여 ‘돌아오길 바라는 편지’로 해석하였다.

4. 불쌍하구나 오구조야, 날이 밝아오는 거 알라고 억지로 말하다니. 까닭 없이 삼경에 울어대서 내 님께서 어둠 뚫고 가시는구나.
5. 새의 본성은 날기를 좋아하는 듯, 둘이 날아서 서로 떨어졌다. 생이별에 마음 안정시키지 못하고, 밤새 울어서 날이 밝았구나.
6. 창을 밀어도 창은 열리지 않고, 지계문을 흔들어도 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화려한 피리를 내려놓아, 당신께 드리려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7. 멀리 천리 밖 구름을 바라보지만, 저는 지금 집에 숨어있습니다. 날아가려 해도 두 날개가 없으니, 외로운 그리움을 어찌해야 할까요.
8. 파릉 삼강의 어구에, 갈대는 삼처럼 가지런하겠지. 저와 이별할 때 손을 잡아주셨는데, 이 애통하고 비통함을 어찌해야 할런지.⁴⁴⁾

그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으나⁴⁵⁾ 대체로 제1수는 「오야제」가 여럿이 춤을 추는 노래였다는 것을 알려준다. 남녀가 여러 명 등장해 정을 나누다가 사라지고, 외로운 여인이 홀로 남았다. 제2수는 배를 타고 떠나가는 임에게 안부를 전하는 여인의 말이다. 제3수에서는 낭군이 떠난 뒤 홀로 남은 여인이 잠을 못자고 편지를 쓴다. 제4수는 임과 더 오래 함께 하고 싶은데 까마귀가 새벽을 알려 임이 떠나게 된다는 내용이다. 제5수에서는 까마귀도 이별에 울고 여인도 밤을 샜다. 제6수의 버려진 여인은 님을 애타게 그리지만 님에게 다가갈 방법이 없다. 제7수의 외로운 여인은 세상 모든 것을 등지고 포기했다. 제8구는 이별 뒤에 남편이 떠나간 곳을 상상하며 이별을 슬퍼하는 여인의 말이다. 이 여인들에게서 굳은 절개와 결연한 의지의 漢代의 유가적인 여성상의

44) 歌舞諸少年, 娉婷無種迹. 菖蒲花可憐, 聞名不曾識.
長檣鐵鹿子, 布帆阿那起. 託儂安在間, 一去數千里.
辭家遠行去, 儂歡獨離居. 此日無啼音, 裂帛作還書.
可憐烏白鳥, 強言知天曙. 無故三更啼, 歡子冒闇去.
鳥生如欲飛, 二飛各自去. 生離無安心, 夜啼至天曙.
籠窗窗不開, 蕩戶戶不動. 歡下葦蕩簫, 交儂那得往.
遠望千里烟, 隱當在歡家. 欲飛無兩翅, 當奈獨思何.
巴陵三江口, 蘆荻齊如麻. 執手與歡別, 痛切當奈何.

45) 淸의 吳兆宜는 『玉臺新詠箋注』에서 ‘창포꽃을 보면 부귀해진다’는 주를 달았는데 오조의 본인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달았다.

존경할만한 품성은 보이지 않는다. 이 시들은 같은 공간, 시간, 사건 상황에서 지어진 작품들이 아니다. 비슷한 배경과 상황을 가지고 비슷한 정서의 공감대를 공유하는 비슷한 시가의 모음이다.

古辭「烏夜啼」는 기본 내용이 이별 때문에 괴로워하는 여인이 화자가 되어 자신의 슬픈 심정을 때론 독백으로 때론 까마귀나 임에게 나약하게 하소연하는 구조이다. 까마귀는 여인과 슬픔을 공유하고 여인의 슬픔의 정도를 대신 알려주며 단절된 세상과 여인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제4수의 휘방꾼 까마귀도 결국은 이별의 슬픔을 확인해주는 존재이다. 그래서 「오야곡」에는 그 슬픔의 정도에 따라 까마귀가 없어도 상관없다. 이 시의 여성들은 제6수를 제외하면 모두 중국 남방의 서민 여성(어부나 선원이나 상인의 아내거나 딸)이며 그녀들의 말이나 심정은 그들 전체 집단의 정서와 연결된다. 그녀들의 이별은 그 시대의 그 지역의 민간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었고 겪고 있었던 운명과도 같은 일상이었다. 그래서 古辭「오야제」는 버려진 여인의 극복할 수 없는 절망감을 나약한 체념의 목소리로 노래한 남방의 집단적 서정의 민간 가요이다.⁴⁶⁾ 첩과 딸이 남편과 아버지의 무죄를 굳게 믿고 까마귀가 그들에게 報喜를 하는 교훈적인 신화의 本事와는 상관이 없다.

제6수(창을 밀어도...)는 유의경 이야기에 나오는 시구(籠窗窗不開, 夜夜望郎來)와 비슷하다. 제6수에서 유의경 이야기의 구절이 유래한 것인지, 유의경 이야기의 구절에서 제6수가 유래했는지는 불분명하다. 곽무천의 『악부시집』에는 초기의 악부시 가운데에 1수만 특정인물의 작품이라고 설명하는 악부시도 있다. 가령 「懊農歌」는 古辭 14수 가운데에서 1수만이 晉의 石崇의 애첩인 綠珠의 작품이라고 한다. 석승과 녹주의 유명한 옛날이야기에도 이 시가 등장하는데 역사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다. 만약 곽무천이 ‘유의경의 첩이 근심과 그리움에 노래했다’는 「금력」의 별로 재미없는 기록을 채택하고 「오야제」도 제6수만 ‘유의경의 첩의 노래다’라고 했으면 古辭「오야제」의 상황과

46) 蕭滌非는 “「오야제」에 이르러 풍속이 극도로 淫靡해졌다(風俗至此, 淫靡極矣.)”고 하였다. 蕭滌非, 앞의 책, 215쪽.

부합했을 것이다. 제6수의 여인만 그 신분이 귀족이나 상류층의 아내거나 첩, 또는 최소한 상류층을 상대하는 기녀의 분위기를 가지기 때문이다.

南宋의 역사학자인 鄭樵는 『通志』⁴⁷⁾에서 「오야제」를 주해하면서, 杜佑의 의심과 제1수를 제거하고, 대신에 ‘籠窗窗不開, 夜夜望郎來.’는 ‘아마도 (유의경이 까마귀의 기쁜 소식을 알려준) 첩을 노래했을 것이다’⁴⁸⁾라고 말했다. 明代の 『古樂苑』이나 清代의 『唐宋詩醇』도 정초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통전』의 유의경 이야기와 유의경 창작설을 인정하려한 이러한 해석은 최근 연구자들에게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⁴⁹⁾ 상황도 어색하고 내용도 자연스럽지 않다. 그럼에도 억지로 유의경이 지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유의경은 『世說新語』의 저자이며 음악에도 재능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琴曲 연주와 작곡에도 능했다. 본래 악부시는 漢代부터 이미 거문고로 반주를 하였다.⁵⁰⁾ 梁 이후의 악부시 「오야제」에는 거의 모두 거문고가 등장하고, 唐詩의 「오야제」 묘사에도 거문고가 등장⁵¹⁾한다. 또한 지금은 失傳되었지만 唐代에 「오야제」는 教坊樂에 포함된 琴曲의 하나였다. 그러므로 유의경이 琴曲 「오야제」를 작곡했다는 믿음도 일리가 있다. 현재까지도 중국의 거문고 관련 서적에는 유의경이 琴曲 「오야제」를 작곡했다고 종종 기술된다.

「오야제」 제6수에 古辭 「오야제」의 다른 작품과 약간 다른 성격의 여성이 등장하지만 그녀의 나약한 목소리가 깊은 좌절감에 빠져있다는 점은 다른 여성들과 같다. 그녀는 민간의 여성과 같은 정서와 목소리를 가졌다. 그래서 다른 古辭들과 같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다. 그리고 「금력」의 기술처럼 유의경의

47) 鄭樵, 『通志』卷四十七.

48) 其辭云, 籠窗窗不開, 烏夜啼, 夜夜望郎來, 蓋詠其妾也.

49) 王立增은 이 주장을 억지라고 했다. 王立增, 앞의 논문, 67쪽.

50) 漢의 악부의 曲調는 기본적으로 淸調, 平調, 瑟調로 구성되었는데, 모두 거문고를 사용하였다. 蕭滌非, 앞의 책, 27쪽.

51) 賈島 「送張道者」, “새해에 거문고를 안고 어디를 가나, 낙양 삼십육봉의 서쪽이지. 여태 산인의 얼굴을 알지 못했었기에 한 번도 「오야제」를 듣지 못했네.(新歲抱琴何處去, 洛陽三十六峰西. 生來未識山人面, 不得一聽烏夜啼.)”

첩이 노래했을 수도 있고 「통지」의 추측처럼 유의경이 첩을 노래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악부고제요해』 이후 연구자들이 이야기를 과도하게 부풀리면서 유의경의 琴曲 「오야제」도 설화가 되었다.

이상 古辭 「악부시」에서 보았듯이, 「오야제」의 기원은 남방의 민간 가요다. 그 내용은 이별의 고통으로 나약해진 여성의 슬픈 하소연이며 민가의 전형적인 내용이다. 그리고 혹시 유의경이 정말 「오야제」 제6수를 지었더라도 전체적인 古辭 「악부시」의 민가 기원과 그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다.

3. 南朝 「烏夜啼」와 「烏樓曲」의 定立

「오야제」와 달리 「오서곡」은 민가적 성격을 가지는 作者未詳의 초기 古辭가 없다. 『악부시집』은 다만 「오야제」의 해제에서 마지막 부분에 오공의 『악부고제요해』의 의혹-“오야제와 오서곡이 같은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만을 인용했다. 「오야제」와 「오서곡」을 이렇게 혼동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古辭 이후에 처음 나온 「오야제」와 「오서곡」의 擬樂府⁵²⁾는 모두 한 사람인 梁의 簡文帝(503-551의 작품이었다. 그는 古辭 「오야제」의 내용을 자신의 기준으로 둘로 나누어 자신의 擬古樂府 「오야제」와 「오서곡」을 만들었다. 古辭 「오야제」는 簡文帝의 擬 「오야제」와 「오서곡」의 내용을 포함했다. 그리고 동시대나 후대의 사람들은 간문제의 기준을 따랐다. 古辭와 簡文帝擬⁵³⁾의 이름이 같았기 때문에, 의고악부 사이의 혼동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난 후대에는 「오야제」를 「오서곡」처럼, 「오서곡」을 「오야제」처럼 쓰는 일도 생겼다. 그러나 簡文帝가 의고악부 「오야제」와 「오서곡」을 분리시켰을 때 그와 교유했거나 그를 추종했던 南朝의 시인들은 이 둘을 혼동하

52) 擬樂府, 또는 擬古樂府는 왕족, 귀족, 문인 등의 인물이 민간의 악부시를 흉내 내어 쓴 樂府詩를 가리킨다. 漢代나 六朝 초기의 樂府民歌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중국 고대 악부시의 본령은 擬樂府이다.

53) 간문제가 흉내를 내어 쓴 작품이라는 뜻이다. 필자의 용어이다.

지 않았다. 고악부 「오야제」와 「오서곡」은 간문제에서 시작했고 간문제가 그 범위를 정했다.⁵⁴⁾ 다음은 간문제가 쓴 「오야제」이다.

“「烏夜啼」簡文帝

초록 풀 정원 안에서 밝은 달을 바라보고, 푸른 옥 집 안에서 황금 문고리를 마주한다. 줄을 울리고 채를 튀기니 소리는 시작부터 기이한데, 거문고 고르며 주옥과 같은 노래들을 부르려 한다. 삼죽오가 아침에 해를 머금은 것을 의심하지 않으나, 다만 아홉 새끼 까마귀가 밤에 서로 서로 부르며 울었다 말한다. 부끄러이 말하길 홀로 잠자며 베개 아래로 눈물 흘렸으니, 홀로 깃드는 성 위의 까마귀⁵⁵⁾에게 말해달라고 부탁한다.⁵⁶⁾

간문제는 古辭 「오야제」의 가정 큰 정서였던 이별 뒤에 홀로 남겨진 나약한 여인의 외로움과 슬픔의 감정만을 선택했다. 다른 이야기들(떠나고 이별하는 장면, 까마귀의 새벽 알림, 단체 무용, 자신을 떠나간 연인의 상황에 대한 상상 등)은 사라졌다. 古辭제6수의 여인이 제7수처럼 홀로 지내며 제5수처럼 까마귀 울음에 밤새 울면서 제3수처럼 까마귀에게 소식 전달을 부탁한다.

간문제의 「오야제」는 시의 화자가 古辭와 달리 시인 자신이다. 그는 가련한 여인을 직접 목도한 것이 아니라 예인의 거문고 연주를 감상하며 그 슬픔에 대한 동정심을 경험했다. 그의 「오야제」는 좌절된 사랑의 슬픔을 노래한 琴曲 「오야제」와 그 연주를 감상하고 그 내용의 정서를 전달하는 관찰자 시인의 진술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시가 금곡을 전달하는 이 구조는 이후 「오야제」의 전형이 되었다. 古辭에서 여인의 슬픔을 일깨우거나 여인과 슬픔을 함께 나누던 시 내부 공간의 까마귀가 簡文帝擬에서는 시 안의 금곡

54) 梁의 簡文帝가 태자 때부터 신하들과 宮體詩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烏棲曲」을 같이 무리를 이루던 신하(蕭子顯이나 徐陵)가 먼저 썼을 수도 있다. 궁체시가 대체로 민간의 풍속을 신하가 제왕에게 알리고 그것을 제왕이 즐겨 쓰면 신하들이 다시 따라하는 순서로 유행했기 때문이다.

55) 「城上烏」 역시 악부시의 제목이다.

56) 綠草庭中望明月, 碧玉堂裏對金鋪. 鳴絃撥發初異, 挑琴欲吹衆曲珠. 不疑三足朝含影, 直言九子夜相呼. 羞言獨眠枕下淚, 託道單棲城上烏.

속에 존재하는 예술적 대상물이 되었는데 이는 간문제의 매우 뛰어난 예술적 성취였다. 시 내부와 시 속의 시를 건너다니는 까마귀는 시의 밖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간문제 이후의 「오야제」는 간문제의 구조-예인의 금곡연주와 전달자의 진술-을 따르기도 하고 따르지 않기도 하였다. 古辭의 여인화자가 나오기도 하였다. 간문제의 「오야제」는 여성 화자를 회피함으로써 시가 지나치게 비극적이고 무거운 분위기가 되는 것을 피했다. 그러나 여전히 어두운 분위기의 시였고 간문제가 선택한 하나의 정서-홀로 남겨진 여인의 나약한 슬픔-이 「오야제」를 대표했다. 다음은 간문제의 「오서곡」⁵⁷⁾이다.

「烏棲曲」 簡文帝

1. 연꽃으로 배를 만들고 비단으로 끈을 만드니, 북두칠성은 하늘에 가로 놓이고 달은 떨어지려한다. 연을 따는 나무는 황하에 가로막혀, 낭군 이제 건너려하나 바람 파도 두렵다.
2. 뜬 구름은 휘장 같고 달은 고리 같지만, 어찌 밤마다 남쪽 길가에서 지낼 수 있으리오. 의성에 유숙하는 이번 길도 익숙해서, 안장 두고 말 매고는 잠시 머무른다.
3. 푸른 소 끄는 붉은 바퀴의 일곱 향기 수레가 가련하게도 오늘 밤에도 기생집에서 머문다. 기생집 높은 나무에 까마귀가 깃들려 할 때, 비단 휘장 비취 이불 낭군께서 내리겠지.
4. 비단으로 짠 병풍, 금으로 만든 무릎덮개, 붉은 입술 하얀 얼굴 등 앞에 떠오른다. 서로 마주하는 숨소리 낭군의 어여쁨을 바라니, 누가 부끄러움 머금고 앞으로 나서지 않으리오.⁵⁸⁾

「오야제」에서 슬픈 여인에게 동정심을 표현하면서도 스스로 동참하지 않았

57) 민가 「烏棲曲」이 없었다는 점에서 보았을 때 簡文帝의 「오서곡」은 類似擬樂府라고 할 수 있다. 樂府詩史에서 李白이 新題樂府로 유명하지만 결국 이런 유사악부가 신제악부인 것이다.

58) 芙蓉作船絲作絆，北斗橫天月將落。採蓮渡頭礙黃河，郎今欲渡畏風波。
浮雲似帳月如鉤，那能夜夜南陌頭。宜城投泊今行熟，停鞍繫馬暫棲宿。
青牛丹轂七香車，可憐今夜宿倡家。倡家高樹烏欲棲，羅帷翠被任君低。
織成屏風金屈膝，朱唇玉面燈前出。相看氣息望君憐，誰能含羞不自前。

던 간문제는 「오서곡」에서는 스스로 시의 화자가 되어 이 애정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의 「오서곡」은 古辭 「오야제」가 포함하는 남방 민간의 애정 이야기에서 비극성을 제거하고, 모험과 설렘이라는 자극성을 남겨서 그 유희적 성격을 추구하였다. 그가 「오야제」를 쓸 때는 사용하지 않았던 화려한 수사의 의미적인 표현 기법은 ‘까마귀가 등지에 쉬는 노래’라는 제목이 비유하는 ‘남녀 간의 夜合’ 또는 ‘남녀 간의 愛情事件’을 우아하게 변모시켰다.

그의 표현은 생동감 있고 그의 등장인물들은 살아있는 것 같으며, 그들의 모습은 거칠거나 야하지 않고 아름답다. 황제는 자신의 품격으로 민간과 풍속의 애정사건을 함축적인 사랑의 로망스로 승화시켰다. 이 우아한 사랑의 모험은 시의 청자에게 낯선 만남, 아쉬운 이별, 안타까운 기다림, 두근두근한 불륜 등을 경험하게 하였다. 그래서 고상한 왕족과 문인들이 간문제를 따라 기꺼이 상인, 선원, 어부, 기녀, 여인 등의 목소리를 흉내 냈다.

간문제의 4수의 모음시는 古辭 「오야제」처럼 비슷한 내용의 서로 다른 시들이다. 이러한 모듬의 형태는 이후 「오서곡」들이 다양한 내용의 연애 모험을 감행할 수 있게 하였다. 이들은 모두 남방 풍속의 연애사건을 다룬다. 애정사건에 관련된 이야기이므로, 모두 밤의 상상이 뒤를 따른다. 古辭에서 연유한 이별장면(제1수)과 애타는 그리움(제3수)도 보이지만 관심은 다른 곳에 있다. 제1수의 주된 관심은 아침에 떠나는 사랑을 감행한 남자가 거친 파도와 맞서야 한다는 사랑의 도전이다. 민간 어촌 남녀의 사소한 애정행각이 시의 화려한 수사와 함께 마치 견우와 직녀의 (슬픈 이별이 아니라) 사랑 모험이 되었다.

다소 모호한 제2수는 사실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민가적 사랑 모험 이야기이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방랑자는 아름다운 밤의 경치 속에 여관에 들었다. 그는 마음 속에 사랑하는 여인을 간직한 낭만적인 인물이고 밤의 아름다운 모습은 그의 정성스런 사랑의 감정을 일깨운다. 그런데 어찌면 타지의 여관에서 그는 아름다운 기녀나 사연이 있는 도시 여성이나 가난한 시골 부녀자를 만날 수도 있다. 그 때 그의 진실한 사랑이 그런 유혹들을 견딜 수 있을까?

제2수의 주제는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간직한 충직한 남성의 타지에서 어떤 만남에 대한 기대’이다.

제3수는 전형적인 閨怨詩의 모습이다. 원망에 찬 그녀의 독백(또는 낭군에게 전하는 말)은 낭군의 화려한 행차를 묘사하고 기생과의 호사스런 동침을 추측했다. 화려하고 섬세한 묘사는 가련한 여성에 대한 동정보다는 바람둥이 남자의 애정 편력에 대한 불건전한 상상력을 불러온다. ‘바람둥이 남편이 비단회장 비단이불에서 기녀와 뭐할까?’ 제3수는 아내가 있는 남자가 기녀와 화려한 밤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오야제」의 이별의 슬픔과 나약한 기다림의 정서와는 다르다.

제4수는 사랑하는 남자와 마침내 동침을 하게 된 여성의 노래다. 비록 낭군이라고 표현했으나 남편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인다. 선정적이지만 상징적인 시의 묘사는 이 시가 모험적인 사랑 이야기에 경도된 궁체시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해준다.

「오서곡」의 밤은 기다림에 지친 슬픈 밤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기쁨을 함께 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밤이다. 까마귀도 잠을 가려간 그 밤에 남자와 여자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고, 아침의 이별까지도 포함하는 그 모든 내용이 「오서곡」의 사랑 이야기가 될 수 있었다.

이상에서 확인한 것처럼, 간문제의 「오서곡」은 그가 古辭 「오야제」를 자신의 궁체시적 성격의 악부시 「오야제」와 「오서곡」으로 분리한 결과물이다. 간문제에게 「오야제」와 「오서곡」은 다른 정서의 시였다. 그의 「오야제」는 古辭 「오야제」와 기본 정서를 공유했다. 그것은 이별과 외로움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까마귀가 등장하는 관찰적 화자의 시였다. 이에 반해 「오서곡」은 남녀의 夜合과 애정 사건의 시작을 재촉하는 까마귀가 등장하는 모험적이고 참여적인 시였다. 「오야제」는 가려리지만 가려앉은 분위기였고 「오서곡」은 경쾌하지만 경박하지 않았다.

4. 南朝 「烏夜啼」와 「烏棲曲」의 展開

1) 「오야제」의 침체

簡文帝의 擬 「烏夜啼」는 「烏夜啼」가 슬픈 내용의 琴曲이었다는 것을 알려 준다. 간문제 이후에 南朝 시기에 악부시 「오야제」를 쓴 사람은 간문제의 휘하에서 어울렸던 劉孝綽(481-539)과 北周에서 즐겁지 못한 삶을 살았던 庾信(513-581) 밖에 없다. 「오야제」 역시 남조의 유태주의적이고 여색지향적인 유약하고 퇴폐적인 문학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그 기본 정서가 버려진 슬픔과 외로움이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무거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즐거운 마음으로 詩作을 즐기려한 심각한 것을 꺼리는 정신적 수준을 가졌던 시대의 바람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저 琴曲을 통해 슬픈 음악을 즐기는 수준에서 만족했던 것 같다.

유효작은 간문제와 함께 거문고 음악 「오야제」를 연회에서 감상한 다음, 간문제와 함께 또는 간문제를 따라 악부시를 지었을 가능성이 크다. 유효작의 시는 간문제의 시와 거의 똑같다. 의고악부는 전통적으로 약간의 표현을 달리 한 것에서 의의를 찾기도 하였다.

「烏夜啼」劉孝綽

곤계 줄은 잠간 연주를 그쳤고, 이별의 학 곡조⁵⁹⁾도 잠시 기러기발을 멈췄다. 이별에는 우는 까마귀의 노래가 있으니, 동과 서로 서로 등을 지고 날아갔다. 여자 예인은 독수공방을 원망하는데 집 떠난 남자는 간 뒤에 돌아오지 않는다. 문득 생이별의 노래를 듣고는 긴 밤 동안 비단 옷을 눈물로 적신다.⁶⁰⁾

59) 학조 : 「別鶴操」,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는 거문고 곡.

60) 鷓鴣弦且輟弄, 鶴操暫停徽. 別有啼烏曲, 東西相背飛. 倡人怨獨守, 蕩子遊未歸. 忽聞生離曲, 長夜泣羅衣.

庾信은 「오야제」 2수를 연작시로 지었다. 제1수는 기본적으로 간문제의 작품과 같은 구조이다.

「烏夜啼」其一 庾信

줄을 급하게 당긴 어지러운 연주는 「자야가」가 아니며, 노래 소리와 춤추는 자태는 「전계곡」과 다르다. 어사부 안에서는 어디에 목을까? 낙양 성에서는 어찌 깃들리오. 거문고 타는 것은 촉군의 탁문군이요, 비단을 짜는 것은 진천의 두씨의 아내 소혜이다. 어찌 스스로 놀라 늘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리오, 결국 까마귀 울음소리는 항상 밤에 우는 것일.⁶¹⁾

간문제가 까마귀 형제 이야기를 전고로 더하고 유효작이 다른 유명 금곡의 이름을 더했던 것을 따라서 유신은 다른 유명한 금곡의 이름과 또다른 까마귀 이야기 및 유명한 버림받은 여인들의 전고를 시에 집어넣었다. 이러한 시작은 거의 기교적인 목적 때문이다. 그러나 시의 마지막에서 그는 이전에 없었던 자신만의 탄식을 추가하였다. 여인이 눈물을 흘린 것은 까마귀가 울어서가 아니라 여인 자신이 이미 버림을 받아 외롭고 슬프기 때문이다. 슬픔의 근원에 대한 시인의 성찰은 유신 개인의 사유적 결과물로 보인다. 이것은 내용과 정서면에서 간문제의 모작을 뛰어넘는 부분인데, 예술적으로는 간문제의 시적 공간을 넘나들던 까마귀의 뒤를 따른 것이다. 제2수에서 마침내 시 속의 노래 속의 까마귀가 유신 자신에게 찾아왔다가 다시 시 속의 노래 안으로 돌아간다.

「烏夜啼」其二 庾信

계수나무는 멀리까지 예지를 하고, 바람 속의 대나무는 어찌 숙이려 하겠는가. 밝은 달밤을 홀로 불쌍히 여기니, 외로이 날며 여전히 깃들지 못한다. 호랑이같이 용맹한 용사지만 누가 아껴주리오, 어사가 어찌 그와 손을 잡으리. 비록 관현의 음악에 들어갔다 말하지만, 결국은 곡 안에서 운다.⁶²⁾

61) 促柱繁弦非子夜, 歌聲舞態異前溪. 御史府中何處宿? 洛陽城頭那得棲. 彈琴蜀郡卓家女, 織錦秦川竇氏妻. 詎不自驚長淚落, 到頭啼烏恒夜啼.

제2수는 제1수에서 말했던 슬픔의 원인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 슬픔은 여인의 슬픔이 아니라 유신의 슬픔이다. 「오야제」에도 귀신을 울리는 작품이 있었다면 그것은 李白의 「오야제」가 아니라 유신의 「오야제」일 것이다.

2) 「烏棲曲」의 流行

南朝 시대에 「오서곡」은 인기가 좋아서 簡文帝와 어울리던 문인 뿐 아니라 그 뒤의 왕족이나 문인들 역시 의약부를 만들었다. 그 시대의 유희적이고 향락적이며 경박한 풍조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간문제의 신하였던 蕭子顯(487-537)은 모험적 내용의 음란한 작품을 창작했다.

「烏棲曲」蕭子顯

향기로운 나무에 날아와서 짝을 지어 모이니, 여전히 남은 햇빛 산에 반쯤 걸렸다네. 치마를 걷어올리길 꺼리면서 서로 구하는 않는 짓 하지 말라, 한고산에서 노닐던 여인들의 풍습이 전해지니까.⁶³⁾

산에 놀러가서 처음 만난 여자와 좋은 일을 만들자는 내용은 남조 「오서곡」의 퇴폐적인 성격을 잘 보여준다. 유희주의적이고 여성지향적인 성격은 사실 남성을 위한 것이었다. 간문제의 「오서곡」을 모른다면, 왜 물가가 아닌 산 위에서 처음 만나는 여인에게 수작을 거는 내용의 제목이 「오서곡」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簡文帝의 동생이며 간문제의 뒤를 이어 잠시 왕위에 올랐던 元帝(508-554)는 그의 형이 정립한 시의 형태와 풍격을 따라 경쾌하고 생동감이 있으면서도 우아한 풍격의 「烏夜啼」六首를 창작했다. 그의 시는 특히 수사적인 측면에서 후대의 악부시 「오서곡」에 간문제의 시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쳤다.

62) 桂樹懸知遠, 風竿詎肯低. 獨憐明月夜, 孤飛猶未棲. 虎賁誰見惜, 御史詎相攜. 雖言入弦管, 終是曲中啼.

63) 芳樹歸飛聚儔匹, 猶有殘光半山日. 莫憚褰裳不相求, 漢皇遊女習風流.

1. 휘장 안 맑은 술은 마녀중이며, 치마 옆 여러 패물은 호박룡이다. 쓸데 없이 지나다 그대에게 부치나 마음 아깝지 않으니, 함께 삼성을 가리키는 지금은 어느 밤인지.
2. 짙은 눈썹 밑 열린 붉은색으로 꽃 빛을 찍어내어, 그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련다. 금동이 물시계의 밤 물이 어찌 많겠는가, 은하수처럼 마구 쓰지 말지어다.
3. 해당화로 배를 만들고 계수나무로 노를 삼아서, 밤에 강남으로 넘어와 연잎을 판다네. 西施가 새로 비단을 찢는 걸 다시 만난다면, 함께 강가로 가서 달빛을 바라보리.
4. 달이 밝은 것은 옥과 같고 별은 패물과 같으니, 흐르는 그림자는 옥당 안을 환하게 밝힌다. 한단의 아홉 가지는 아침에 비로소 만들어질 터인데, 금잔과 옥사발 그대와 함께 기울이리.
5. 용과 봉이 어우러진 비단 무늬 옷, 연꽃 허리띠 석류꽃 치마. 해 지는 성남에서 둘은 서로 바라보고, 달 가라앉고 삼성 돌아서니 비단 휘장 가 된다.
6. 일곱 빛깔 따르는 구슬, 아홉 화려한 옥, 호랑나비 노래를 하고 밝은 별이 곡을 한다. 난초 방 산초 문 밤에야 비로소 열리니 발걸음마다 향기 바람 따름을 어찌 알리오.⁶⁴⁾

제1수는 화려한 치장을 하고 깊은 밤까지 고급 술을 마시는 여인이 연인과
의 만남을 상상하며 그리워하고 있다. 외롭긴 하지만 모험적인 상상을 부른다.
제2수에서 여인은 진하게 화장을 해서 연인이 어리둥절하게 만들겠다고
말한다. 아울러 만남의 밤 시간을 아껴쓰겠다는 다짐도 하고 있다. 제3수는
어부 또는 젊은 남자가 신화적인 뱃길의 모험을 통해 전설적인 미녀 서사와
의 만남과 사랑을 꿈꾼다. 제4수는 달과 별이 밝은 밤에 연인과 화려한 방에
서 함께 아침까지 술을 마시고 즐기겠다는 내용이다. 제5수는 남녀의 정사를
화려하면서도 품위 있게 묘사하였다. 제6수는 여인이 있는 곳을 선녀가 사는

64) 幄中清酒馬腦鍾, 裙邊雜佩琥珀龍. 虛持寄君心不惜, 共指三星今何夕.
濃黛輕紅點花色, 還欲令人不相識. 金壺夜水詎能多, 莫持奢用比懸河.
沙棠作船桂爲楫, 夜渡江南採蓮葉. 復值西施新浣紗, 共向江干眺月華.
月華似璧星如佩, 流影澄明玉堂內. 邯鄲九枝朝始成, 金卮玉腕共君傾.
交龍成錦鬪鳳紋, 芙蓉爲帶石榴裙. 日下城南兩相望, 月沒參橫掩羅帳.
七彩隨珠九華玉, 蚊蝶爲歌明星曲. 蘭房椒閣夜方開, 那知步步香風逐.

공간처럼 묘사하면서 그 여인 또한 선녀와 같은 인물이라고 노래하였다. 전체적인 시의 수사가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우아한 왕족의 품격 때문인지 경박하지 않게 표현되었다. 대체로 민간의 사랑, 그리움, 모험, 미녀, 밀회, 밤 등의 내용은 간문제의 작품과 크게 다르지 않다.

徐陵(507-583)은 두 수의 「오서곡」을 썼는데 제2수는 古辭 「오야제」의 제4수를 그대로 모방하였다. 새가 시끄럽게 떠들어 연인의 잠을 깨우는 상황은 古辭에서 이별의 안타까움을 느끼게 했지만 「오서곡」에서는 재미와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느끼게 한다.

「烏棲曲」徐陵

1. 탁문군이 불게 분칠하고 이 밤을 기약했고, 오랑캐 여인 술을 파니 누가 가격을 따지리. 풍류를 즐기는 순옥은 멋쟁이 남자, 분칠 짱 잘하셔서 좋은 향기 풍기신다.
2. 수놓은 비단 휘장이 등축을 감추니, 하룻밤이 천년이라도 도리어 부족하리. 다만 못된 여남의 답들이 미울 뿐이니, 은하수 지지 않았는데도 다 투어 우는구나.⁶⁵⁾

岑之敬(519-579)은 「오서곡」을 한 수 지었다. 그의 「오서곡」은 간문제의 「오서곡」의 제2수를 고쳐쓴 것이다. 시간 배경을 세분하였고, 여행의 과정도 더 자세하게 서술했다. 나그네는 사랑하는 연인을 그리워하지만 밝은 달은 새로운 꽃을 비추고 술집은 손님을 불든다.

청춘마 곧장 떠나 뜬 구름 속에 사라졌고, 황하 나무터에 얼음 깨져 두 언덕이 나뉘었다. 까마귀 숨고 해 어두워져 길 가는 이도 쉬는데, 외로이 깃든 새 그림자에 오래도록 그대를 생각한다. 밝은 달은 16일에 새로 핀 꽃을 비추는데, 술집에선 15일에 날이 저물었다고 손님을 머물게 한다.⁶⁶⁾

65) 卓女紅粉期此夜, 胡姬沽酒誰論價. 風流荀令好兒郎, 偏能傅粉復薰香.
繡帳羅帷隱燈燭, 一夜千年猶不足. 唯憎無賴汝南雞, 天河未落猶爭啼.

66) 驄馬直去沒浮雲, 河渡冰開兩岸分. 烏藏日暗行人息, 空樓隻影長相憶. 明月二八照花新, 當壚

陳의 마지막 황제 後主(553-604)는 연회와 오락을 탐닉하다가 隋에게 나라를 빼앗긴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은 인물이었다. 그가 쓴 3수의 「오서곡」은 최초의 연작시이다. 그의 시는 南朝의 「오서곡」 가운데에서 가장 음란하다.

「烏棲曲」陳後主

1. 두렁가엔 새 꽃이 어지러이 피어났고, 이파리 속의 봄 새는 봄의 정취 보내온다. 장안의 유희는 무수히 짝을 지어, 흰 말 검은 말이 길에 가득 하다.
2. 황금안장 해질 때까지 서로 이어지는 듯 하고, 옥 같은 얼굴 짝을 지어 휘장 앞으로 온다. 교태를 머금고 눈으로 말하니 나를 풀어줘요, 비취 허리며 비단 치마를 들어가 풀어줘요.
3. 합환 무늬 저고리의 향기는 백화향이고, 침대 안 이불은 원앙 한 쌍을 짜넣었다. 까마귀 울고 은하수 가라앉아 하늘 밝으려 하니, 단지 회포를 품고서 낭군을 전송한다.⁶⁷⁾

전적으로 오락을 위해 쓴 작품이다. 제1수에서 ‘장안의 유희(長安遊俠)’이라고 말한 것은 漢代부터 쓰이던 상투적인 표현이다.

陳後主의 신하였던 江總(519-594)는 「오서곡」을 한 수 썼다. 그의 시는 그의 황제의 것과 달리, 표현이 화려하면서도 그 내용이 차분하다. 그의 여인은 이별 때문에 울었다.

「烏棲曲」江總

- 복사꽃 봄물에 목란 노, 금 재갈 비취 지붕 황하 다리에 모였다. 농서로 가는 걸 계산하면 마땅히 떠나야 해서, 성남의 미인은 날 밝을 때 울고 있다.⁶⁸⁾

十五晚留賓.

- 67) 陌頭新花歷亂生, 葉裏春鳥送春情. 長安遊俠無數伴, 白馬驪珂路中滿.
金鞍向暝欲相連, 玉面俱要來帳前. 含態眼語懸相解, 翠帶羅裙入爲解.
合歡襦薰百和香, 牀中被織兩鴛鴦. 烏啼漢沒天應曙, 只持懷抱送郎去.
- 68) 桃花春水木蘭橈, 金羈翠蓋聚河橋. 隴西上計應行去, 城南美人啼著曙.

여인은 화려하고 사물과 아름다운 배경⁶⁹⁾ 속에서 오로지 이별의 슬픔 때문에 울고 있다. 수사는 「오서곡」인데 감정은 「오야제」이다. 南朝 「오서곡」의 기본 정서가 이별 사건 이전에 발생한 남녀 간의 애정 사건에 관심을 두었지만, 강충의 「오서곡」은 古辭 「오야제」의 이별 감정을 차분하게 이어받았다. 이는 南朝 이후로 악부시의 정서가 「오야제」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리는 상징적인 일이다.

5. 결론

樂府詩 뿐 아니라 古詩를 포함하는 漢詩의 역사에서 ‘머뭇받은 여인의 슬픔에 찬 체념’이라는 주제의 작품은 초기부터 늘 있어왔고 그 수량 또한 매우 많았다. 시는 격동된 감정이 담길 수 있는 근본적인 문학 형식이고, 여성의 사랑과 이별, 슬픔과 체념, 배신과 원망 등은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의 기복이 가장 큰 종류의 사건이었다.

까마귀는 고대 중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새였다. 특히 남방 지역에서는 도시, 농촌, 산간 어디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새로, 남방 민가에도 늘 자주 등장했다. 밤에 우는 새소리에 감정의 변동을 경험하거나 밤에 집으로 돌아가는 새의 모습에 가족이나 연인을 연상하는 것은 한시의 역사의 초기부터 옛 사람들이 문화적으로나 문학적으로 경험해서 학습했던 茶飯事였다. 그러니 남방 민가에서 이별의 슬픔과 연인과의 歡交를 비유하는 까마귀가 등장한 것은 특징적이긴 하지만 유별난 것은 아니었다. ‘기쁨을 알려주거나’ ‘소원을 들

69) 胡應麟은 『詩藪』에서 “간문제의 「烏棲曲」 4수는 새롭고 아름다우며 정밀하고 교묘한 것이, 제량의 짧은 고시 가운데에서 언제나 절창이었다. … ‘북두칠성은 하늘에 가로 놓이고 달은 떨어지려 한다’와 ‘붉은 입술 하얀 얼굴 등 앞에 떠오른다’의 시는 시어가 특히 교묘하다. 오직 江總의 ‘복사꽃 봄물에 목란 노’ 1수만이 어느 정도 뒤를 이을 만 했다.”라고 하였다. (簡文烏棲曲四首, 奇麗精工, 齊梁短古, 常爲絕唱. … 至北斗橫天月將落, 朱脣玉面燈前出, 語特高妙. 惟江總桃花春水木蘭橈一首差可繼之.) 蕭滌非, 앞의 책, 230쪽, 재인용.

어주는' 까마귀가 '억울한 사연을 풀어주는' 설화가 필요한 신기한 사건이 아니다.

古辭「烏夜啼」는 이런 '버림 받은 여성의 슬픈 체념'이라는 익숙한 사건과 감정이 南朝 시기 남방의 풍속과 경치와 결합된 여성적 감성의 民歌이다. 여기에 남방에서는 낮이나 밤이나 늘 들리는 까마귀의 울음소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여성과 정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악부시「오야제」는 '까마귀가 밤에 운다'는 제목이 시의 내용이자 주제이며 핵심 감정인 민가풍의 시가이다.

梁의 簡文帝는 古辭「오야제」에서 자신만의 슬픈「오야제」와 즐거운「오서곡」을 만들었는데, 그의 문학적 재능은 즐거운「오서곡」에 치중되었다. 그 시대 악부시풍의 궁체시에는 음란하거나 경박한 작품이 부지기수였고, 흔히 볼 수 있던 까마귀가「오서곡」에만 나오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민간과 귀족의 주인공이 번갈아 나오면서 만들어내는「오서곡」의 애정 모험담은 신선한 감동을 주었고, 민간의 주인공은「오야제」의 주인공과 같은 신분과 배경을 가졌다.

간문제의「오야제」와「오서곡」은 이후 古樂府의 기준을 세웠고 사람들은 그의 기준을 따랐다. 후대의 인물 가운데에는 정서적으로「오야제」를 지향하지만 문학적인 수사와 생생한 이야기의 측면으로는「오서곡」을 동경해서, 이 둘이 결합된「오서곡」같은「오야제」를 만들기도 하였다.

參考文獻

- 김학주, 『中國文學概論』, 서울: 신아사, 1991.
- 서경호, 『중국 문학의 발생과 그 변화의 궤적』,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3.
- 서용준, 「이백 악부시 오서곡 연구-시의 화자를 중심으로」, 『중국문학』 64집, 한국중국어문학회, 2010.
- 안동환, 「악부민가에 나타난 남북조 생활상 비교」, 『中國人文科學』 19호, 중국인문학회, 1999.
- 지세화, 「漢代 民間 樂府詩의 敘事性 考察」, 『中國研究』 3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2004.
- 가와이 고조, 심경호 역, 『중국 고전시, 계보의 시학』, 서울: 이회, 2005.
- Dore J. Levy, 『Chinese Narrative Poetry: The Late Han through T'ang Dynasties』,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1988.
- Joseph R. Allen, 『In the Voice of Others』, The University of Michigan, 1992.
- Robert E. Hegel, 『Expressions of Self in Chinese Literatur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5.
- 晁成林, 「試論故事詩在漢魏六朝發展中的衰退」, 『宜賓學院學報』 제2기, 宜賓學院, 2006.
- 陳恩維, 「論模擬與南朝宮體詩人的新變策略」, 『學術探索』 2009년5기, 雲南省社會科學界聯合會, 2009.
- 傅焯莉, 「論西晉樂府詩中故事體歌詩表演方式對內容的影響」, 『井岡山大學學報(社會科學版)』 33권1기, 2012.
- 郭茂倩, 『樂府詩集』, 北京: 中華書局, 1998.
- 胡大雷, 「論中古樂府歌辭的原生態狀況」, 『廣西師範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32권4기, 廣西師範學院, 2011.
- 李春祥 편, 『樂府詩鑑賞辭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0.
- 劉加夫, 「蕭綱樂府詩論」, 『山東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54권6기, 山東師範大學, 2009.

- 羅根澤,『樂府文學史』,北京:東方出版社,1996.
- 彭黎明,彭勃主編,全樂府,上海:上海交通大學出版社,2011.
- 強中華,「蕭梁帝王詩歌題材瑣屑的多重原因」,『北方論叢』2010년6기,哈爾濱師範大學,2006.
- 沈元林,「再評宮體詩」,『天府新論』2000년3기,四川省社會科學界聯合會,2000.
- 王莉,「論烏夜啼曲牌來源及其填制」,『玉林師範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33권4기,玉林師範學院,2012.
- 王立增,「烏夜啼本事考」,『貴州文史叢刊』2008년1기,貴州省文史研究館,2008년.
- 吳相洲,「關於建構樂府學的思考」,『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43권3기,北京大學,2006년.
- 吳兆宜,『玉臺新詠箋注』,北京,中華書局,1999.
- 向回,「本事對文人古題樂府創作的影響」吳相洲編,『樂府學第三輯』,北京:學苑出版社,2008.
- 向回,「試論樂府詩曲名與本事之關係」,『石家莊學院學報』14권4기,石家莊學院,2012.
- 向回,「樂府詩本事來源類型分析」,吳相洲編,『樂府學第七輯』,北京:學苑出版社,2012.
- 向回,「樂府詩集解題材料的類型分析」,吳相洲編,『樂府學第六輯』,北京:學苑出版社,2010.
- 蕭滌非,『漢魏六朝樂府文學史』,臺北:長安出版社,1976.
- 顏慶餘,「論樂府古題的傳統」,吳相洲編,『樂府學第二輯』,北京:學苑出版社,2007.
- 曾曉峰,彭章鴻,「試析漢樂府文事相依的傳播特點」,『中南民族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24권2기,國家民族事務委員會,2004.
- 詹鍈,『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天津:百花文藝出版社,1996.
- 左漢林,「烏夜啼本事與烏象徵意義的變遷論考」,『山西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9권5기,山西大學,2006.

Abstract

Study of the origin and succession of old Yuefu poetry <Wuxiqu> and <Wuyeti>

Suh, Yong-Jun

Old yuefu poetry “Wuyeti” is a ballad of the feminine sensibility, which combined the eventual emotion of a woman who was abandoned by sweetheart and the atmosphere of the southern provinces in old China. The sadness of abandoned woman was such a familiar feeling in the field of classic Chinese poetry. It could have been found frequently and very much in the literary forms from the beginning of the Chinese poetic history.

There were many crows in old China, especially southern provinces. People could always see crows and hear the sound in town and country. Frequent appearance of crow in the folk ballad of southern provinces was natural. People had got various feelings day and night from the cry of crows of the real world or of the lyric songs.

The title of Old yuefu poetry “Crow cried at night” meant every important things of the poetry. It explained the tragic lonesomeness of the heroine who couldn't fall asleeping at night until dawn, hearing cry of crows that were belived to share the sad emotion of abandonment. “Wuyeti” was a weak and passive appeal of complain, could be heard everywhere in old china from every common ladies. It's emotion was based on feeling that was shared by public members of common provinces. so the myth of crows that would usher in good news and accomplish wish for the noble class who suffered from some unfair events. Common yuefu poetry did not need that legendary origin.

Jianwendi, the emperor of liang dynasty had the poetic ability, he divined two yuefu poems-“Wuyet-Crow crying night” and “Wuyexi-Crow sleeping Night” from old yuefu poetry “Wuyeti”. He composed many poems and defined the difference of two. “Crow crying night” was tragic mood like old “Wuyeti”. “Crow sleeping night” was lyrical romance of love adventure of southern province folk guys including noble ones. The standard of Jianwendi had been accepted by other poets

of classic chinese world for long period.

Key Words : Yuefu poetry, Ballad of southern province. crow of old china, appeal of abandoned woman, lyrical love advenutre of folk lad

투 고 일 : 2014. 5. 10. / 심 사 일 : 2014. 5. 20.~ 2014. 6. 15. / 게재확정일 : 2014. 6. 20.